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	**보도자료**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2021년 2월 26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농식품부 국내방역반 반장 이기중(044-201-2551), 서기관 황성철(2555) / 제공일: 2월 26일(총 2매)		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살처분 대상 조정 연장

- 3월 14일까지 2주간 예방적 살처분 대상 1km 유지 -

□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(본부장 김현수 장관, 이하 '중수본')는 **지난 2월 15일부터 2주간**(~2.28) **실시**해오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인근 가금에 대한 **'예방적 살처분 대상 축소' 조치를 3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.**

○ 이와 관련하여 중수본은 지난 2월 15일, 기존 **발생농장 반경 3km 내 전 축종 가금에 대해 실시하던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반경 1km 내의 발생축종과 동일한 축종*으로 축소**한 바 있다.

* 방역에 취약하고 발생 빈도가 잦은 종오리와 육용오리는 동일 축종으로 간주

□ 중수본은 **지난 2주간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의 발생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**하여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하였다.

○ 최근 **야생조류**에서 **고병원성 AI 항원**이 여전히 검출되고는 있으나, **검출빈도가 다소 낮아지고*** 있고 **겨울철새의 서식 개체수**도 **감소**(1월: 148만수 → 2월: 86만수)한 것으로 나타났다.

* 야생조류 일 평균 검출 : (1월) 3.5건 → (2.1~2.14) 2.4 → (2.15~2.23) 2.0(검사 중 포함)

○ 2월 15일 이후 **경기·충북·경북·경남·강원**지역에서 **7건의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산발적으로 발생**하였으며, **그간 방역조치 강화** 등으로 **발생건수는 감소 추세***이다.

* 가금농장 일 평균 : (1월 한달) 1.4건 → (2.1~2.14) 0.9 → (2.15~2.25) 0.5

□ 중수본은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**2주간 조정사항을 유지*** 하고, **추가적인 연장여부는 추후 재평가를 통해 결정할 계획**이다.

* 2주가 경과하기 전이라도 조류인플루엔자가 재확산될 경우 조정안 재검토

○ 또한 **전체적으로 발생위험은 줄어들었지만 지역적으로는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 지속**되고 있는 만큼,

- 기 발표한 2주간 "**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 조치**"*와 **차량 통제·소독 강화** 등 **그간 추진해 온 방역 강화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**이라고 밝혔다.

* 당초 '20.10~'21.2월까지였던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.14일까지 2주간 연장조치(2.23)

□ 중수본 관계자는 "여전히 **농장 내부와 주변에 잔존 바이러스**로 인한 **위험이 존재**하는 만큼, **바이러스 제거와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**"고 강조하며,

○ **가금농장 관계자**를 대상으로 "**차량·사람의 농장 출입 최소화 및 소독 실시, 매일 전실 소독·청소,** 축사 출입시 **손소독, 장화 갈아신기, 농장 소독 및 주변 생석회 도포** 등을 반드시 이행해 줄 것"을 당부하였다.